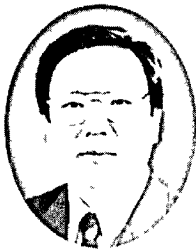


인사말씀

會長 李 啓 錫



우리 先輩 韓藥人은 유구한 歷史의 흐름 속에서 外勢의 많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國民保健 向上에 기여하여 오면서 學問차원에서든 수많은 苦難을 극복하며 民族醫藥의 正統性을 잘 유지·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韓醫藥抹殺政策에서도 불구하고 굳건히 韓醫藥을 갈고 닦아 겨레의 健康을 지켜온 우리 선배 한약인들은 學問을 통해 단결함으로써 찬란한 韓藥文化를 꽃피워 왔습니다.

우리는 先輩님들의 이러한 知慧와 崇高한 뜻을 이어받아 韓藥을 더욱 繼承·發展시켜야 한다는 使命感으로 學術研究事業에 매진하여왔으며, 지난 97년에는 韓藥協會 歷史 이래 첫 學術誌인 ‘大韓韓藥’을 탄생시켰으며, 이제 그 9號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大韓韓藥’을 發刊할 수 있었던 것은 會員님들의 聲援과 熱情으로 사심 없이 玉稿를 제공하여주시고, 學術事業에 獻身하여 오신 學術委員會 委員님들의 努力의 結果라 하겠습니다.

韓方은 우리 先輩 韓藥人들이 수 많은 臨床過程을 통하여 研究, 發展시켜온

學問이며, 우리 民族의 健康과 生命을 지켜온 우리 固有의 醫術인 것입니다.

우리는 正統 韓藥人이라는 自矜心과 使命感으로 지속적인 學術事業을 통해 死藏될 우려가 있는 소중한 名方을 集成함으로써 우리의 存在價値와 力量을 發揮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韓藥業士는 1983년 이후 後輩를 배출하지 못하고 會員님들의 高齡化에 따른 인원 감소로 會勢가 弱化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學問 研究를 통하여 결속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學術事業이 年輪을 쌓아가는 동안 世界傳統醫藥市場에서 우리 韓方의 優秀性を 인정받으면서, 影響力을 確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9號誌가 탄생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주신 소병창 學術委員長님 이하 學術委員님들을 비롯하여 사심 없이 소중한 玉稿를 公開해주신 會員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2005年 12月